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활동 전개

김중훈 경제부지사, 신성장사업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방문... 최대 예산 반영 위해 중앙부처 설득 나서

각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연일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실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왼쪽 위)는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를 방문해 20 내년 중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국회단체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에 비해 부처단계 예산 반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날 28일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를 방문해 전북도 미래역가리 신성장 사업 등 내년도 중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에 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식품부를 찾은 김 부지사는 김인중 차관과 면담을 갖고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과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사업 3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국내외 바이오파우드리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용소제 바이오파우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체제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 도내 미래 농생명산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식품분야 중요사업으로 푸드테크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한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 '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 등의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김

영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 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찾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나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2주가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박람회 개최

기업 인력난 해소·외국인 지역 정착 위한 취업상담·일자리 매칭 6개 시군 26개 기업·외국인 200여명 참여... 취업시 F-2 비자 발급

전북도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도내 대학교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날 28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도내에서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기업에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제공하고, 전북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시범사업 6개 지역의 26개 기업이 함께 했으며,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취업 상담, 일자리 매칭 등이 진행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일정 소득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그간 김제시·고창군·부안군에서 개최한 지역특화형 비자 박람회의 경험을 활용해 사업 시범지역을 통한 박람회를 개최했다. 또 이들에게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유인물을 제공해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기업의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인 인재가 취업하게 되면 거주 비자(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지역우수인재 추천서가 발급된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사무소(전주) 심사를 통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9월과 12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돼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정된 쿼터 400명 중 204명을 모집한 상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내 284만8375필지 공시·전북 전년도보다 6.37% 하락 이의신청 30일까지... 재조사 등 거쳐 내달 27일 조정 공시

전북도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날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도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2023년 전북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전국 하위 8위)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폭이 소폭 크고, 2022년 변동률 8.48%보다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 2020년 수준의 현실화를 적용하는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익산시 -6.73%로 하락률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 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m당 715만 1,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m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

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인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내달 16일까지 도내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59곳 대상

전북도는 자연휴양림 등 도내 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조성돼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11개소, 산림욕장 19개소, 수목원 4개소, 산림레포츠 시

설 1개소, 치유의 숲 3개소, 정일 8개소, 유아숲체험원 13개소 등 총 59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이다.

점검 점검내용은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 시설별 안전관리 및 작동 여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완강기 설치 여부 △실내외 전기설비, 소방안전 설비 등의 안전관리

및 작동 여부 △객실 위생상태 등이 다.

특히, 위기 상황별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대피요령, 근로자 안전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점검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에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도는 산림휴양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성수기 이전 산림휴양시설 점검으로 전복을 방문하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감시·신속 대응 시·군 보건소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전북도는 기온·습도의 상승, 장마로 인해 병원체의 증식이 쉬워지는 하절기를 대비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을 감시·예방하고자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살모넬라 △장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가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이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는 도 및 14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유지해 집단 발생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특히,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해 설사, 구토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보일 경우 집단 환자 발생 의심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시·군 보건소, 당직실 또는 의료기관이나 기관장의 신고를 접수한 후 발생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 감염병 역학조사반과 위생관리부서, 도 및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출동,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다.

노출한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의식과 야외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을 통해 일상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광고 제2023-1375호

익산시 경관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개최목적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및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함.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 5. 15.(월) 14:30 ~ 16:30
나. 장 소 :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2층 실내공연장
다. 내 용 :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답변
3. 계획의 개요
가. 범 위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주요내용 : 기정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등 경관계획 재검토
· 경관 가이드라인(설계지침) 정비, 경관사업 반군 및 실행계획 수립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시면 또는 FAX(063-859-5091)
나. 문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 ☎063-859-5583)

2023년 5월 1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